

광주 區 境界조정 미적거리단 큰일

오는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치구 간 경계조정 문제가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동구와 서구 등의 인구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의석수가 2석이나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조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경계조정 과정에서 일부 정부분 인구를 내줘야 하는 자치구의 입장과 선거구 획정에 따른 손익 계산, 지역 정치세력간 이해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될 지는 미지수

서구 순방에서도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지역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국회의원 시절 뼈저리게 느꼈으며,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려면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강 시장은 "동구 국회의원 1석과 서구 국회의원 2석을 유지하려면 광산구보다는 남구와 북구 인구를 동구와 서구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구(국회의원 1석), 북구(2석)가 인구 하한선 및 상한선과 충돌을 피하면서 구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동구와 서구로 인구

동·서구 국회의원 2석 감소 위기 市 조정역할 자청 방안 마련 나서

다. 광주시에 따르면 18대 총선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10만4000명, 상한선은 31만200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19대 총선을 치른다면 동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와의 선거구 통합, 서구는 갑과 을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동구와 서구의 지난 10월 말 인구가 각각 10만2782명, 30만4047명으로, 동구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서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19대 총선이 2012년 4월 치러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법상 6개월 이전인 2011년 10월까지 선거구가 정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국회의원수가 기존 8명에서 6명으로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면서 광주시가 조정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최근 5개 자치구 구청장과 회의에 이어

와 면적을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이 해당 자치구와 경계 조정으로 자치구가 변경될 주민들의 의견수렴, 행정안전부와 협의, 국회 선거구 확정 등의 등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구간 경계 조정이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불편, 자치구 간 균형발전 등의 측면보다는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를 위해서 거론되고 있는 듯하다"며 "일단 광주시와 국회의원간 합의안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의원 및 주민들과 논의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조만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친 뒤 구간 경계조정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 공룡알 화석 첫 공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계자가 정밀화석 복원처리장에서 대형 육식 공룡알과 동지화석 복원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다. 이 화석은 지난해 10월 신안군 압해도에서 형태가 완벽히 보존된 채 무더기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박물관측은 2일부터 26일까지 특별전을 열어 복원한 공룡알과 동지화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 관련기사 11면

광주 학업성취도 고교생 최고, 초등생 꼴찌

전남은 여전히 낮아

광주 고교 2학년의 국·영·수 과목 학업 성취도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 초·중·고의 기초학력 수준은 중하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은 중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3%를 기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전국 초·중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 학생 총 193만9000여명(1만1485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성적은 점수가 아닌 '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 등 3개 등급으로 발표된 합의안 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의원 및 주민들과 논의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자료 : 교과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초6	1.6	1.3	1.5	1.5	1.9	1.3	1.7	1.8	0.9	0.6	1.2	1.6	1.6	1.5	1.0	1.1
중3	7.0	5.2	4.0	3.8	4.8	5.2	4.1	6.2	5.8	3.7	5.3	7.3	6.6	4.0	4.2	6.3
고2 (일반계)	6.3	2.6	1.8	2.0	1.6	2.4	3.7	5.2	3.6	2.5	2.7	3.9	3.5	2.2	3.1	2.7

학생은 국어·수학·영어 등 3과목이다. 평가결과 광주 초등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9%, 중학생(3년)은 4.8%, 고교생은 1.6%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초등학생은 0.1% 포인트, 지난해 치른 성취도 평가 결과(1.6%)에 비해서는 0.3%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꼴찌다. 가장 낮은 강원(0.9%)과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배 이상 높다.

세부적으로 광주 고 2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84.6%)와 수학(83.0%), 영어(75.1%) 등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다. 기초학력 미달비율(1.6%)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국어와 수학, 영어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국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75.4%로 울산(75.6%), 충북(75.7%)에 이어 전국 3위, 수학은 63.8%로 대구(66.8%)에 이어 2위, 영어는 72.5%로 대구(74.2%)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초등학생 미달비율은 1.6%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줄었지만, 전국 순위에서는 중하위권에 그쳤다. 중학생은 6.6%로 전국 평균 5.6%에는 1% 포인트 가량 못 미쳤다. 고등학생 미달 비율은 3.5%로 전국 평균(4.0%)을 밑돌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本社 人事

▲ 朴金錫 : 전북취재본부장 겸 군산주재국장 (12월1일차)

www.kgrc.ac.kr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0. 11. 04 - 12. 02

고구려대학 입학문의 062-330-7323-5

학교설립 56주년 (1954 ~ 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12월 17일~22일
가교원서접수 12월 17일~22일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팝아트 거장 키스 해링展

12월8일 광주 개막...대표작 150여점 전시

광주일보사는 낙서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미국출신의 천재 예술가 키스 해링(Keith Haring·1958~1990)의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展'을 개최합니다. 광주시립미술관·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키스 해링 사후 20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아이콘' '팝샵(Pop shop)', '앤디 마우스(Andy Mouse)' 연작 등 대표작 150여 점이 선보입니다.

- 기간 = 12월8일~2011년 2월27일(화~목·일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7시, 금요일·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 장소 =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 요금 =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 6천원
- 주최 = 광주일보사·광주시립미술관·매일경제신문사
- 주관 = 엠헤스트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주한미국대사관·유니세프한국위원회
- 문의 =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062)613-5396

光州日報社

포스코, 광양에 1조원 투자

합성천연가스 공장 건설

포스코가 광양국가산업단지내 총 1조원을 투자해 합성천연가스 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사재빌딩에서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이성용 광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성천연가스(SNG·Synthetic Natural Gas)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오는

2013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광양 국가산업단지내 41만5000㎡ 부지에 석탄을 사용, 매년 50만톤의 합성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다. 광양에 들어설 신규 생산시설은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생산시설로 건설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원의 천연가스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www.EPOST.kr

전남체신청 1588-1300

이상 그 이상의 특송!

만국우편연합 금상 4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우체국 국제특송 로켓배송

전 세계 215개 국가로 발송되는 EMS로 여러분의 소중한 서류와 물품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배달보장 서비스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홍콩, 영국,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 등 9개 국가에 대해서는 배달보장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약속드린 날보다 하루라도 늦게 배달되면 우편요금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EMS 우체국 국제특송 전국 어디서나 1588-1300